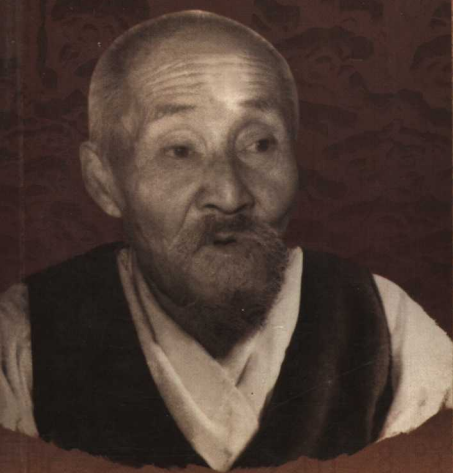


김재권 수집정리



● 민간이야기대왕

중국이야기편

황구연전집

2

연변인민출판사

김재권 수집정리

황구연전집 ②

중국이야기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봉웅, 최문섭

책임교정: 김홍화, 최순란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黄龟渊全集. 2. 中国故事篇: 朝鲜文 / 黄龟渊口述; 金在权整理.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4
ISBN 978-7-80698-904-3

I. 黄… II. ①黄… ②金… III. 朝鲜族-民间故事-作品集-中国-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77.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048623号

黄龟渊全集(第二卷 中国故事篇)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787×1092 1/16 插页: 4 印张: 26 字数: 300千字

标准书号: ISBN978-7-80698-904-3 (民文)

版次: 2007年4月第1版

2007年4月第1次印刷

印数: 1300册

定价: 精装 64.00元; 平装 34.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청춘시절의 황구연 (1939년)



성당위상무위원 겸 주당위서기 등개동지께서 저자와 주당위 선전부, 주문련, 주민간문예가협회, 연변인민출판사 등 유관부문의 지도자들을 접견. 좌로부터 전순자, 채영춘, 등개, 김재권, 리성권, 리성비 (2007.3.1)



중국민간문예가협회 당조서기 마진동지 김재권가정을 방문. 좌로부터 박창묵, 마진, 김태갑, 김재권. (1986. 8)



중국민간문예가협회 림상태비서장 황구연을 방문. 좌로부터 중국정치협상회 상무위원 겸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주석 김태갑, 림상태, 황구연, 황창수. (1984. 4)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제4기지도부성원들. 좌로부터 리룡득, 김재권, 김충묵, 박창묵, 김태갑, 리창인, 정영석.(1979)



수집자와 번역자. 좌로부터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부주석 겸
비서장 박창묵, 전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주석 박찬구, 김재권.



연변민간에인옛말대회 참가자 합영 (1979. 9)

황구연전집

제1권 장편이야기

제2권 중국이야기

제3권 력사이야기

제4권 명인이야기

제5권 지혜이야기

제6권 사랑이야기

제7권 향토이야기

제8권 어린이이야기

제9권 동식물이야기

제10권 우스운 이야기

머리말

우리 조선족의 조상들이 살길을 찾아 이 땅에 올 때 쪽박에 담고 온것이 바로 몇알의 씨앗과 민간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의 유산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언어유산과 구비문학이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비문학에는 산문계통으로 설화, 운문계통으로 민요, 희곡계통으로 판소리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민간이야기는 낫설고 물선 고장에서, 심심산골과 허허벌판, 그리고 메마른 자갈밭에 뿌리내리고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얼어죽지 않았고 광풍폭우속에서도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한세기가 넘는 기나긴 역사의 흐름속에서 다른 물건 같으면 이미 썩어 사라졌으련만 민간이야기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보석마냥 아름답게 다듬어져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야기속에서 발전하였고 광대한 인민대중이 창작하고 구전하였기때문입니다. 즉 세계를 창조한 인민이든지, 시대를 창조한 영웅이든지, 이야기속에는 인민들의 감정과 지향, 념원이 담겨져있기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전부터 어머니배속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합니다. 때문에 민족 언어와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데서 민족의식과 자주정신, 민족의 얼과 넋을 키우며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여 전통적인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게 됩니다.

구비문학은 그 민족의 력사와 문화의 반영으로서 거기에는 민족의 마음이 투영되어있고 인민대중의 꿈과 삶의 지혜와 슬기, 유모아가 스며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창작하고 인민들속에서 대를 이어 구전되어온 구비문학은 한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물질재부와 정신재부입니다. 뿐만아니라 구비문학은 세계 여러 민족 인민들의 삶과 지혜의 결정체로서 어른들은 이 귀중한 보석을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봅니다.

하여 나는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중점적으로 정리하며 알맹이를 거두고 찌꺼기를 버리며》《옛것을 오늘에 응용하고 외국의것을 중국에 응용》하는 문예방침에 따라 민족의 사명감으로 중국이야기대왕의 한분이며 조선족구연예술가의 대표자인 황구연선생이 구술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력사이야기와 성구, 속담 및 시사의 출처와 그에 대한 준확한 증실자료를 찾아 대조하느라 애썼고 정리가 끝나면 황선생을 찾아가 구술자의 개성과 이야기의 원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천경 땅을 물려주기보다 한권의 책을 물려주는것이 소원》이라 하시던 황선생의 말씀을 리행하려고 천박한 지식과 지혜를 몰부었으나 수준의 제한으로 황선생의 의도대로 전달할수 없음을 독자들께서 리해하여주시기 바랄뿐입니다.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면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니라》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좋은것을 받아들일 때

현실에 유용한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새 문화와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후대들이 민족의 뿌리를 알고 아무리 잎이 무성한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살수 없다는 도리를 깨우치기 바랍니다. 숭늉처럼 구수한 좋은 이야기에는 우리를 깨우쳐 주고 이끌어주는 심오한 철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더 값있고 보람있게 살고 인류의 재부를 창조하여 더욱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참답게 독서하고 사고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황구연전집》은 10권으로 출판합니다. 독자들의 독서편리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제1권 《장편이야기》, 제2권 《중국이야기》, 제3권 《력사이야기》, 제4권 《명인이야기》, 제5권 《지혜이야기》, 제6권 《사랑이야기》, 제7권 《향토이야기》, 제8권 《어린이이야기》, 제9권 《동식물이야기》, 제10권 《우스운 이야기》로 묶었으며 제10권에 부록으로 황구연구술목록을 실었습니다.

황구연선생이 구술한 이야기에는 신화, 전설, 설화로부터 력사, 이민사, 항일투쟁사가 있으며 담자가 붙은 이야기만 해도 사담, 야담, 민담, 고담, 육담, 소담, 속담, 험담, 한담, 공담, 룡담, 취담, 만담, 재담, 풍담, 밀담, 기담, 덕담, 악담, 객담, 구담, 잡담, 여담 등 제제와 내용이 극히 풍부합니다.

끝으로 《황구연락전》을 정독하기 바라며 《황구연전집》에 수록된 이야기에는 박창목, 황상박 선생이 수집, 정리한것이 많다는것을 밝히며 또한 황구연선생이 구술한 중국이야기에는 조선과 한국에 류전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구술자의 구술을 존중하고 류전과 대비연구에 도움이 될가 하여 그대로 정리하였으며 이미 언론매체에 발표된 이야기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전집의 출판을 위하여 물심량면으로 지지, 후원해주신 민족출판사 조문편집실, 중공연변주위 선전부,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민간문예가협회와 한국 금강기업 고경주사장님과 민족의 사명감으로 해택을 베풀어주신 연변인민출판사 지도부와 편집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재권
2004년 5월 2일

황구연략전

1. 《신동》의 학력

중국3대이야기대왕중의 한분이신 저명한 민담구술가 황구연(黃龜淵)선생은 1909년 2월 27일, 조선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의 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리조초기에 이름난 정승이었던 황희정승의 22대손인 황구연의 부친 황의진은 4형제중 막내였는데 큰형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 하다가 열병으로 돌아가자 황구연을 큰어머님의 양자로 들여보냈다.

황구연은 다섯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슬하에서 천자문을 배웠다. 나 어린 황구연은 어찌나 구지욕이 강하고 총명했는지 불과 몇달 안되는 사이에 천자문을 다 배워냈다. 이를 본 황구연의 아버지는 동네사람들과 의논하고 쌀을 지고 양주군에서 300리나 떨어진 강원도 한 시골에 찾아가서 학식이 깊고 명성이 높은 리련이라는분을 모셔다 서당을 꾸리고 그를 서당훈장으로 모시었다. 이렇게 되어 황구연은 일곱살때부터 서당에 들어가서 한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총명이 뛰어난 황구연은 서당에서 《소학》, 《대학》, 《론어》, 《맹자》, 《주역》, 《춘추》까지 다 읽었다.

황구연이 다섯살때였다. 손자의 손을 잡고 마을앞 논뚝길을 걷던 할아버지는 인기척에 놀라 논판으로 뛰어드는 개구리를 보고 손자에

게 물었다.

《애 구연아, 저 개구리들이 네가 무서워 도망치는구나.》

그러자 구연은 포도알같은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개구리들을 살피보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아니예요, 발가벗은 개구리들이 부끄러워서 물속에 숨는거예요, 호호호.》 하고 깔깔 웃었다. 구연이의 엉뚱한 대답에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또 넌지시 물었다.

《웁거니. 헌데 저 하늘에서 종다리는 저렇게 울어도 눈물이 보이지 않고 들판에 활짝 핀 꽃들은 웃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웬 일이나?》

《종다리가 우는게 아니구요, 신나서 노래부르니 눈물이 있을수 없구요. 미녀의 웃음이란 대소가 아니라 미소이니 어찌 소리가 있겠사옵니까?》

할아버지는 구연이의 대답이 너무나도 기특하여 손자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우고 대자연의 경치를 만끽시켰다.

황구연이 아홉살되던 해의 4월, 립진강 화석정(물곡정자)에서 선비들이 모여 시회(詩會)를 열었는데 그때 할아버지를 따라 놀러갔던 황구연은 당돌하게도 선비들속에 끼여 붓을 들고 시를 지어 청창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의 시를 듣고 돌려가며 보던 선비들은 깜짝 놀라며 《네가 우리 시회에서 장원을 했다.》고 하면서 높이 치하하였다. 열두살되던 해에는 또 시골선비들을 따라 백석면에서 열리는 시회에 구경을 갔다가 시를 지어 특별상까지 탔다. 이리하여 황구연은 《신동》으로 가근방에 소문이 짝 퍼졌다.

황구연이 장장 10년동안 서당에서 글공부하는 기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린 황구연이 글공부를 잘할뿐더러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라고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은 주로 명인담과 선

량하고 충명한 사람들에 대한 설화였다. 특히 서당훈장으로 있는 리련선생은 황구연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황구연은 서당에 나가 밤늦도록 훈장의 이야기를 듣느라 날이 가고 달이 가는줄도 몰랐다. 시골태생인 리선생은 항간에 떠돌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뿐 아니라 학식도 깊어서 늘 민담이나 설화를 가지고 학동들을 깨우치곤 하였다. 역대 조선명인들의 이야기, 역사이야기, 신화, 전설은 물론 중국의 사서, 삼경까지 구수하게 말해주고 배워준데서 황구연은 어린 나이에 공자의 고향에 가보고싶은 꿈을 가졌다. 리련선생은 황구연에게 옛말을 전수한 주요전수자일뿐만아니라 그가 민담구연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논 사람이다.

신학교육이 들어오자 황구연은 시험을 거쳐 광적면 가내보통학교 3학년에 입학하였는데 120일만에 4학년을 끝내고 월반하여 봉정고 6학년을 졸업하고 또 시험을 거쳐 초급중학교 2학년에 들어감으로써 《신동》임을 재차 과시하였다.

그후 황구연은 광주학생운동을 지지, 성원하다가 퇴학을 맞았으나 1927년에 서울중등농업학교에 입학하여 1931년에 졸업하고 고향에서 농업기사로 일하였다.

1937년, 일제의 만행을 더는 볼수 없어 부모님과 사랑하는 처자를 두고 혼자 중국 룡정으로 왔다. 구지육이 강한 황구연은 시험을 거쳐 측량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그런데 일본놈들과 순사들이 조선사람을 업신여기는것이 눈에 거슬려 경찰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3개월동안 경찰로 있으면서 조선족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그때 항일전사들에 의하여 일본총령사관과 투도구파출소가 재더미가 되자 황구연은 투도파출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중조인민의 민심을 잃은 일본제국주의가 오라

지 않아 망하리라고 생각한 황구연은 임명장을 가지고 투도파출소 소장으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도망하여 조선으로 나갔다. 그러나 체포령이 내려 다시 중국에 들어와 부모처자가 있는 룡수평을 거쳐 흑룡강으로 갔다가 사평흑농조합 수전기술자로 일하였다. 한학과 일어, 조선어에 능하고 농전과 측량학교를 졸업한 황구연은 손색없는 농업전문가로 되었다.

이 기간 황구연은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수하게 들려주기도 하고 또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듣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는 민담구연가로서의 자기의 자질을 키우면서 자신의 민담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이때 그는 백성들속에서 류전되는 많은 옛말을 들었는데 그 대부분이 항일이야기와 이민사 및 향토전설이었다.

해방후 황구연은 부모처자가 있는 13구 룡수평에 돌아와 구공량 대표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창의 농업고문으로 일하면서 토지개혁 중 측량을 책임지고 토지를 분배하기도 했다.

1957년, 반우파투쟁이 확대될 때 흑룡강성 동경성에 이주했다가 1961년 다시 연길현(룡정시) 팔도구 룡수촌에 이사하여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중학교, 대학에서 그를 역사교원, 농업교원으로 초빙했으나 그는 거절하고 줄곧 농사일을 하였다. 이때에도 그는 동네에 나가면 이야기판을 벌리고 남녀로소를 선생으로 모시고 생활세대담과 많은 새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구비문학령역을 부단히 넓혀왔다.

2. 이야기대왕

황구연선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김재권이다. 당시 연변민간문

예가협회 부주석 겸 통정시문련 주석으로 사업하던 그는 1983년 7월, 통정시음악가협회 주석 최귀남선생 등 조사조성원들을 이끌고 전 현의 향, 진,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민간문예유산을 수집하던중 팔도진 룡수촌에서 황구연선생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 촌의 남녀로소가 이구동성으로 황구연로인을 《이야기대왕》이라며 추천하였다. 그런데 그는 《문화대혁명》때부터 입을 꼭 다물고 이야기꾼을 풀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몇년사이에 연변대학 역사연구소 선생들이 여러번 찾아왔다가 헛물만 켜고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원인을 알고보니 《문화대혁명》때 잡귀신으로 몰리어 투쟁을 받다보니 다시는 이야기를 안한다는 것이었다. 수집조일행은 장밤 뜯눈으로 지새우며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인도하겠는가를 생각했다.

황구연선생이 살고있는 룡정시 팔도진 룡수평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고장이다. 북으로는 문자 그대로 병풍산이 병풍을 두르고 동으로는 유구한 전설이 깃든 삼형제산을 굽이돌아 구수하 맑은 물이 흘러 흐른다.

아담한 산기슭 양지쪽에 있는 황구연선생의 집은 하얀 백토칠을 하였었다.

황구연선생은 흰 바지저고리에 검정조끼를 받쳐입고있었는데 백발이 성성하고 고희년이 훨씬 넘어 팔순을 바라보는 때였지만 두눈에서는 정기가 돌았다. 올방자를 틀고 앉아 책을 읽고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학식있는 옛 선비의 풍채를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옛말에 나오는 백발신선을 방불케 하였다.

수인사가 끝나자 김재권은 직방배기로 단군시조로부터 리조의 시조 리성계에 이르기까지 력대의 임금들에 대해 간추려 이야기하고 우리 겨레들에게 고국의 력사와 명인들의 이야기를 해줘야겠는데 력